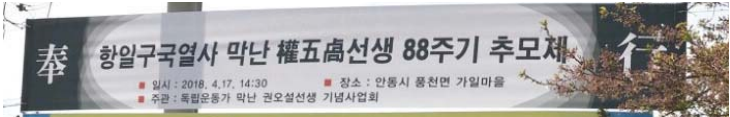


애국열사, 독립운동가, 농민운동가, 노동운동가, 교육자, 민족지사

막난(莫難) 권오설(權五堯) 열사 추모제가 88년 만에 열린다!

권오설 선생은 독립지사,농민운동가,노동운동가,사회주의 운동가,교육자인 동시에 민족지사, 항일열사로서 그 짧은 33년의 생애 동안 모두 이루고 장렬한 삶을 마친 분이다. 그러나 그 평가는 시대 상황의 곡절로 왜곡되다가 이제야 그 고향 들녘에서, 또 순국한 서대문 형무소 현장에서 무려 88년간이란 세월을 넘어 성대하게 열린 추모 행사는 감격 그 자체인 것이다.



88년만에 막난의 고향 가일마을에 붙은 추모제 현수막

그 감동적인 의미

그 의미는 첫째 88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추도식을 그 분향인 안동 묘소에서 거행했다는 것이 그 이 과정에서 존손 및 여러 어른들이 넓은 아량으로 감싸 주었다는 것은 민족의 비극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후손을 위해 민족 대화합의 현실 속에서 시의 적절했다는 것이다.

둘째 소위 좌우익이 다 자의반 타의반 서로 협력하여 십시일반 뜻을 모아 행사를 할 수 있었고 그 참석자들도 모두 의미를 가진 분들이니 후일 자손들에게도 부담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자랑스런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셋째 같은 마을의 같은 집성촌에서 벌어진 같은 곁을 권씨종친회에서도 도와주고 하여 오늘 의 행사가 있었음은 매우 뜻깊은 것이다. 대중회, 안동종친회, 능곡회 모두 축하의 화환을 보내 왔다. 넷째 아직 저 평가된 6.10 만세 운동의 의의와 그 과정에

서 민중과 민족의 편에 섰던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다소 미흡하나마 통일 후에 재평가 받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섯째 밝은 미래를 보는 새로운 세상의 개막이 보수적 고장에서 부터 시작됨은 곧 이 민족의 앞날에 서광이 내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무엇보다 4.27 남북영수회담을 앞두고 그 의미는 더욱 지대하고 이것이 평화와 화합과 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대문 형무소 행사

2018.4.17. 정오 서대문 형무소 추모탑 현장에서 박종철기념사업회 멤버들이 주최한 ‘경성콤’ 멤버의 한 분인 권오설의 추모의 모임이 30여명의 인사들을 모시고 열렸다. 임화 시인의 6.10 만세 운동 시 낭송과 김성동 작가의 피어난 인사말이 있었고, 권씨 대중회 사업국 권오철의 축하와 감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리고 ‘막난아! 봄이 왔다!’ 라는 시의 일부 구절도 소개하였다.

가일마을 기념비와 묘소

안동 가일 마을 현장에서는 ‘권오설 기념사업회(준)’가 주최한 권오설 88주기 행사에는 서울에서



서대문형무소 행사 기념사진, 중앙이 소설가 김성동 선생

버스로 내려간 분들과 현지 존손 등 200여명의 많은 분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뜻 깊고 감동적인 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진혼무를 국악인이며 승무 전수조교인 이애리님이 공연하여서 감동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권오설 선생의 사자(嗣子) 권대용님의 감격에 차고 짧은 인사말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이제 ‘기념사업회’가 활성화하면 더욱 큰 행사가 될 것이다.

거기에 얹어 버린 <막난집(莫難集)>이 예전(醴泉) 어느 고가에서 발견 된다면 그것은 후손에 남겨줄 빛나는 유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권보현, 권옥희 족친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

(취재 권오철 기자)



사자(嗣子)권대용 선생의 인사말



가을들만에 모인 200여 명의 참배객들

權永吉,복야공파 36세, 대중회 부회장, (사)평화철도 이사장

권영길族賢과 함께 한 제1회 열차평화기행

지난달 31일 끊어진 남북의 철로를 연결, 대륙횡단의 꿈을 이루자는 염원에서 출발한 권영길 족현의 ‘평화철도’는 서울역-백마고지역-월정리역으로 이어지는 대장정의 첫발을 함차게 내디뎠다.

이번 참여자들은 모두 이 땅의 평화운동의 기수들이었다. 월정리역에서 간절한 ‘고유제’를 올리고, 인구 2만의 철원 역전이 지뢰밭 빈터로 변한 그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2차 모임을 가졌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100만개의 침묵, 1침묵 10만원, 1차 달성 목표 1000억원! 1침묵당 1~10명 성명과 구호를 앞인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다.

100만개의 침묵은 625km의 철



길에 놓이게 되니, 625 이 또한 기묘한 인연의 숫자가 아닌가? 이제 ‘개벽’과 ‘전환’과 ‘통섭’의 시대에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연결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코리아의 기백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權門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일조 하는 방안을 사업국에서도 강구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족친의 연락을 바란다.

(취재 권오철 기자)

권옥자(權玉子, 복야공파 35세) 대한민국경찰유가족회 중앙회 회장



追慕辭
고인은 대한민국 경찰로서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충성스럽게



본연의 업무를 감당하시던 중 1980년 갑자기 만난 ‘5.18광주’에서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한 죽음의 현장을 만난 그 순간에 내가 죽어도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발포명령을 거부한 용기 있는 행동은 곧이어 그 숭한 고문과 고통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고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해낸 의인 안병하 경무관께서 호국영웅으로 명예회복이 되셨고 오늘 직급변경이 이뤄져 치안감 추서식을 하게 된 줄 압니다.

오직 남편이 병석에서 ‘나는 5.18 유공자가 아니고 경찰순직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30년간 법적투쟁으로 법관들의 가슴을 녹여 남편이 원하는 일을 위해 숨차게 달려 왔기에 ‘경찰순직자’로 명예를 바로 세운 일은 훌륭한 경찰관 남편에 훌륭한 경찰관 아내로 구국 경찰사 2호에 길이 남을 역사 기록의 큰 획을 긋는 일이라 여겨 잡니다.

치안감으로 추서식을 하게 된 고 안병하 호국영웅님은 義人으로 태

어나 의인의 길을 가셨으며 이는 성경속에 “의인은 가던 길을 꾸준히 가는자라”는 말씀대로 오직 의인의 길 한길을 꾸준히 가셨습니다.

이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우리의 숙제만 남았기에 여기 모인 3개 단체(대한민국경찰유가족회, 무궁화클럽, SNS시민동맹)와 유가족은 지난 2월26일 대한민국경찰유가족회 분회 사무실에서 ‘경찰영웅상’ 제정을 위한 1차 회의를 이미 마쳤고 이는 점점 더 발전해서 날이 갈수록 빛나는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세계 경찰사에 길이 빛날 의인의 삶 그 표상이 되어 국민들에게 각인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의인의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교훈의 물줄기는 한강이 되어 유유히 바다를 향해 흐를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하기까지 눈물과 고통으로 이겨낸 아내와 아드님들께 위로와 축하를 드리며 구체적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첨철 철문의

마스터키가 되어서 치안감 추서의 완결로 묘비를 다시 세우도록 일 되게 하신 경찰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경찰묘역에 묻힌 전사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등록단체 대한민국경찰유가족회 권옥자

안병하(安炳夏) 민주경찰의 표상으로, 전남경찰청에 흉상이 세워지고 민주 시대에 빛나는 경찰상으로 남게 되었다. 오늘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소상히 올리고 축하의 말을 남기고 있다. 경찰 민주화의 선봉에선 ‘무궁화 클럽’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 그의 치안감 추서 날짜가 ‘1980년6월1일자’로 되어 있음은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취재 권오철 기자)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무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물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법률법인 청주로 CHEONGJU LAW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씨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씨 대중원 부총재(현)
- 안동권씨 충청북도 증친회장(현)
- 춘천지검장/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검사
- 안산(초대)/충주지청장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인텔변호사빌딩 7F(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